

GIST, '장기 냉전 총서' 첫 권 출간

《장기 냉전 구조와 지식 기제》, 냉전의 지식 작동 방식 심층 분석

- GIST 인문사회과학부 김동혁 교수가 이끄는 융합교육 및 융합연구센터(CIER), 냉전 지식체계 재조명한 연구 결과물(‘장기 냉전 구조 연구: 지식, 감정, 생명을 중심으로’) 총서로 펴내
- 지식 체계 속 냉전의 내면화 과정 고찰 통해 냉전 시대 지식·경제·정치 of 지속성 조명



▲ <장기 냉전 총서 01_장기 냉전 구조와 지식 기제> 책 표지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융합교육 및 융합연구센터(CIER, 센터장 김동혁·인문사회과학부 교수)가 대학 출판부 '지스트 프레스(GIST PRESS)'를 통해 '장기 냉전' 총서의 제1권 《장기 냉전 구조와 지식 기제》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장기 냉전' 총서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CIER가 수행한 「장기 냉전 구조 연구: 지식, 감정, 생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를 집대성한다. 냉전 체제를 단순한 이념 대립이나 과거의 정치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지식 체계 전반에 뿌리내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으로 분석한 융합적 연구 성과를 담는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물인 '장기 냉전' 총서 제1권 《장기 냉전 구조와 지식 기제》는 냉전 체제를 정당화하고 지속시킨 '지식'의 작동 방식을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고찰하며, 냉전이 어떻게 일상 속 지식 구조로 내면화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돼 있다.

▲ 제1장에서는 연제호 연구원(GIST)이 신고전파 경제학이 현대성과 결합해 주류 이론으로 자리잡은 과정을 비데와 마르크스 이론을 통해 해석하고, ▲ 제2장에서는 오경환 교수(성신여대)가 냉전기 발전 경제학이 양 진영의 경쟁 속에서 형성된 정치·지식 체계였음을 밝힌다. ▲ 제3장에서는 김동혁 교수(GIST)가 소련의 계획경제가 수리경제학 중심으로 전환된 과정을 분석하고, ▲ 제4장에서는 장진호 교수(GIST)가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구축 전략과 경제적 헤게모니 확보 과정을 탐구한다.

▲ 제5장에서는 엄소정 연구원(GIST)이 도바타 세이이치의 개발론이 냉전기 동아시아에서 수용되고 변형된 양상을 분석하고, ▲ 제6장에서는 권경택 연구원(GIST)이 소련의 극동 도시계획을 체제 과시를 위한 지정학 전략으로 해석한다. ▲ 제7장에서는 이정하 연구원(GIST)이 냉전기 학문에 내재된 지정학적 사고의 형성과 재생산 과정을 비판지정학의 시각에서 고찰하며, ▲ 제8장에서는 이종식 교수(POSTECH)가 마오쩌둥 시대 중국의 중수과학을 중심으로, 과학의 정치적 형성과 제도화 과정을 분석한다.

총서를 대표 집필한 김동혁 교수는 러시아 현대사 및 소련 경제학사/경제사 분야의 연구자로, 현재 GIST 인문사회과학부 부교수이자 CIER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 교수는 냉전기 글로벌 신고전파의 부상, 소련 수리경제학의 영향력 확산, 그리고 냉전기 소련의 대외무역과 세계 자본주의 체계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해 있다.

그는 "이번 총서는 냉전이 단지 과거의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사회 전반에 깊이 각인된 지식 구조의 유산임을 조명하고자 했다"며, "소련 경제학, 미국의 헤게모니 전략, 중국의 과학정책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냉전이 어떻게 '지식'으로 작동했는지를 규명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냉전을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날에도 유효한 지식 구조로 이해함으로써 포스트 냉전 시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연구팀은 앞으로 연구의 범위를 '감정'과 '생명'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냉전 구조가 인간의 감정과 생명 현상에 미친 장기적 영향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냉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이해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복합적 문제를 역사적으로 성찰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GIST 융합교육 및 융합연구센터(CIER)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의 경계를 넘는 **융합적 사유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형 융합 교육 모델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냉전 지식 허브' 구축, 융합 교과과정 개발, 대중 교육 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후속 사업도 추진 중이다.